

동북·내몽골지역 중국소수민족이 착용한 모피와 피혁류 복식의 유형과 특성

고 순희* · 장현주⁺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othes of Fur and Leather Worn by Chinese Minority Races in the Northeastern Regions of China and Inner Mongolia

Soon-Hee Ko* · Hyun-Joo Jang⁺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Jeju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9. 12. 8, 심사(수정)일: 2010. 1. 4, 게재 확정일: 2010. 1. 7)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fur and leather clothes of minority races of China in Northeast and Inner Mongolia. To examine their characteristics, the clothes and ornam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headwear, clothes, footwear, and accessories. First, headwear was divided into animal head-shaped, petal-shaped, round-shaped, and cone-shaped headwear. Among them, the animal head-shaped headwear was made by making the best use of the shape of animal's head and it was used as the best disguising method when hunting. Second, clothes were composed of upper garments and lower garments. For the upper garments, *Po* and *Jeogori* were worn and pants were worn for the lower garments. The clothes were decorated with lining, appliqué, or top-stitching on the outer collar, neck circumference, and the edge of sleeves and pants. Third, for the footwear, high boots of leather were developed to meet the needs for a convenient life in the plains. In some areas, fur shoes and leather shoes were also used. Finally, accessories included bags and gloves. Bags were usually decorated with fur on the outside or with a fringe or appliqué of tanned leather. Gloves were lavishly decorated with embroideries and partly with fur or leather.

Key words: Northeast and Inner Mongolia(동북·내몽골지역),
Fur and Leather clothes(모피와 피혁류 복식), animal head-shaped(동물머리형),
fur shoes(털신), embroidery(자수)

I. 서론

중국은 한족 외 55개의 소수민족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어 항상 민족간의 문화충돌과 갈등, 대립이 공존해오고 있다. 다양한 소수민족은 생활방식과 자연환경, 기후나 기타 종교, 심미안 등에 따라 각 민족마다 복식의 특유한 형태를 형성하고,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서로 상호 교류하거나 융합되어 중국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에도 큰 영향을 준 것 또한 사실이다. 춘추전국시대 때 조(趙)나라의 군주였던 무령왕이 당시까지 전해 내려오는 중국의 전통 복식을 벗고 변방소수민족의 복식을 입기 시작했다는 호복기사(胡服騎射)¹⁾에 대한 기록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소수민족의 대다수는 국토의 변경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후가 다양하고 자연 상태가 완전히 보존되고 있어서 원시림 속에 각종 동식물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 소수민족은 동북 · 내몽골지구, 서북지구, 서남지구, 중남 · 동남지구의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동북 · 내몽골지구의 자연환경은 초원, 사막, 고원지대로 되어 있으며 겨울이 춥고 길며 대부분의 민족이 유목 및 수렵생활을 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으로는 몽골족(蒙古族), 어른첸족(鄂倫春族), 어원커족(鄂溫克族), 허저족(赫哲族), 따알족(達斡爾族), 만족(滿族), 조선족(朝鮮族)이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는 몽골족(蒙古族)과는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

고려시대 몽골과 고려 왕실간의 국혼이 이루어지면서 민족적인 계통이 같아졌을 뿐만 아니라 고려후기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골족을 비롯한 북방유목민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한반도 중 특히 제주지역의 유목민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원나라에 의해 목장이 세워지고 또한 몽고의 마필과 사육전문가인 목호가 와서 본격적으로 목마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제주에도 말을 돌보는 노비를 목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²⁾.

본 연구에서는 중국소수민족 중 북방에 위치한 동북 · 내몽골지역의 모피와 피혁류 복식의 유형에 대해서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이 지역 소수민족이 착

용한 모피와 피혁류 복식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 된 제주의 전통 텔웃에 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고자한다.

II. 동북 · 내몽골지역 중국소수민족이 착용한 모피와 피혁류 복식의 유형

동북 · 내몽골지역에 속하는 중국소수민족은 몽골족(蒙古族), 어른첸족(鄂倫春族), 어원커족(鄂溫克族), 허저족(赫哲族), 따알족(達斡爾族), 만족(滿族), 조선족(朝鮮族) 등이며, 이들은 내몽골자치구, 동북지역(흑룡강), 길림, 요녕 지역 등에 거주한다. 이들 중국소수민족은 동북 · 내몽골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며 겨울은 길고 매우 춥기 때문에 모피 및 피혁류 복식의 발달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렵 및 유목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포백(布帛)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모피와 피혁류로 만든 모자, 의복, 신발, 소품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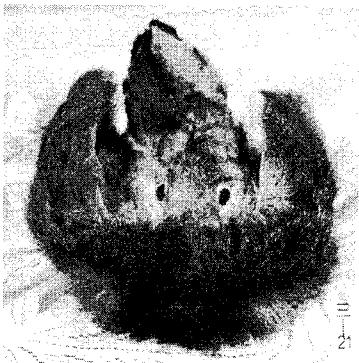
1. 모자

모자는 머리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역할을 하며, 이 지역에서는 유목과 수렵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발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자의 형태에 따라 동물머리형, 꽃잎형, 둥근형, 원추형 모자의 4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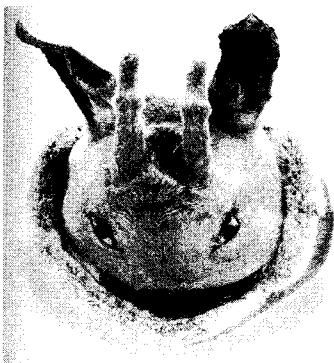
1) 동물머리형 모자

동물머리형 모자는 들개나 사슴의 머리를 그대로 보존하여 머리를 감쌀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눈, 코, 입, 귀, 뿔을 그대로 유지하여 착용 시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모자는 동북 · 내몽골지역 중 수렵위주의 생활을 하는 어른첸족, 따알족, 어원커족, 허저족이 주로 착용하는데 지역에 따라 '구두피모(拘頭皮帽)' 또는 '미에르타'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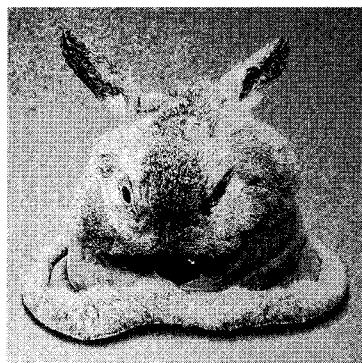
동물머리형 모자를 착용하고 사냥을 할 때 관목림



〈그림 1〉 동물머리형 모자 I, 어른천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42.



〈그림 2〉 동물머리형 모자 II, 어른천족
中國民族復飾博覽, 2005, p.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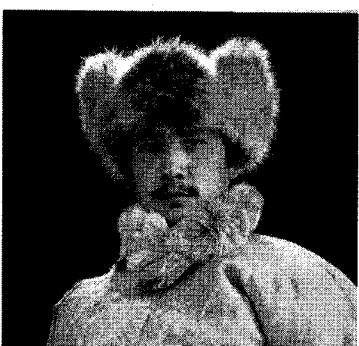
〈그림 3〉 동물머리형 모자 III, 따알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71.



〈그림 4〉 꽃잎형모자 I, 어른천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36.



〈그림 5〉 꽃잎형모자 II, 어원커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70.



〈그림 6〉 꽃잎형모자 III, 따알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53.

이나 풀금 사이에 엎드려 있으면 위로 살짝 보이는 동물머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맹수를 유인 할 수 있고, 맹수들이 미쳐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 시 최고의 위장법의 도구³⁾로 사용되며 보온의 역할도 크다.

〈그림 1〉⁴⁾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른천족이 즐겨 쓰는 고라니 머리로 만든 모자로 어른천족에서는 ‘미에르타’라고 한다. 고라니는 사슴과의 일종으로 털이 부드러워 착용감이 좋고 보온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⁵⁾는 어른천족의 들개머리로 만든 모자로 눈과 뺨, 귀가 그대로 있다. 두 뺨을 따라 목과 어깨 부분을 감싸며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구성⁶⁾되어 있다. 〈그림 3〉⁷⁾은 따알족의 들개 동물머리 모자이며 눈과 귀, 입의 형태가 그대로 있으며, 들개는 고

라니에 비해 가죽이 두껍고 질기다는 특징이 있다.

2) 꽃잎형 모자

꽃잎형 모자는 가장자리가 4개의 등근 꽃잎형태로 나뉘어진 것을 말하며 이것은 착장방법에 따라 양옆 귀 덮개 부분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유목민들이 겨울철 사냥 시 추위를 막기 위해 귀 덮개가 달린 방한용 모자로 사용했던 것으로 대부분 노루가죽, 양가죽, 여우가죽으로 만들며, 어른천족, 따알족, 어원커족, 몽골족이 착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5〉⁸⁾는 고라니 모피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머리 중앙에는 원형이고 양옆, 앞, 뒤 사방으로 꽃잎처럼 등근 형태의 쟁이 있어 펼쳤을 때 마치 꽃잎을 연상케 한다. 〈그림 6〉⁹⁾과 〈그림 7〉¹⁰⁾은 여우가죽



〈그림 7〉 꽃잎형모자Ⅳ, 어원커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71.



〈그림 8〉 꽃잎형모자 V, 몽골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84.



〈그림 9〉 둥근형모자 I, 몽골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101.



〈그림 10〉 둥근형모자 II,
허저족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64.

으로 만든 모자이며 그 중 〈그림 7〉은 귀 덮개 부분을 내려서 착용한 모습이다. 평상시에는 챙을 위로 올려서 착용하지만 매우 추운 날씨에는 챙을 밀으로 내려서 양귀부분을 따뜻하게 보호하기도 했다. 〈그림 8〉¹¹⁾은 몽골족이 착용한 모자로 양털로 만들어졌으며 어른첸족, 어원커족, 따알족의 모자에 비해 머리 윗부분이 둥근 통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3) 둥근형 모자

둥근형 모자는 머리와 귀, 목 등을 한꺼번에 감쌀 수 있도록 통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유목민들이 방한용으로 쓰는 전통모자이며 '풍설모(風雪帽)'라고 한다. 풍설모는 거센 바람과 눈보라에도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면양고피(綿羊羔皮)에 흑색포로 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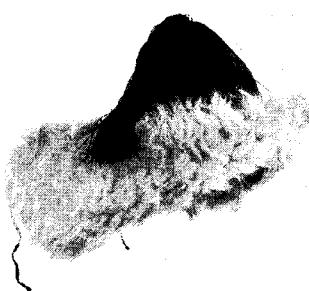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따뜻하다.¹²⁾

〈그림 9〉¹³⁾는 몽골족이 착용한 둥근형 모자로서 모자 꼭대기는 원형이고 양 옆은 귀를 보호하기 위해 모피로 길고 넓게 내려져 있으며, 뒷모양은 제비꼬리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림 10〉¹⁴⁾은 허저족이 착용한 둥근 형태 모자로서 고라니 털을 사용했으며 거센 눈보라에도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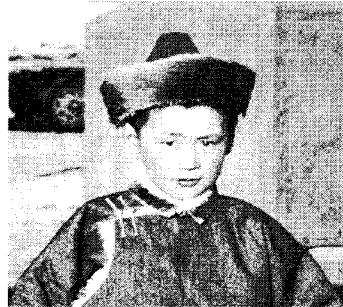
4) 원추형 모자

원추형 모자는 위가 뾰족하며 모자의 귀 덮개부분은 양털이 부착되어져 있다. 이것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릴 때 필수품의 하나이며, 몽골족과 어원커족이 즐겨 착용하는 모자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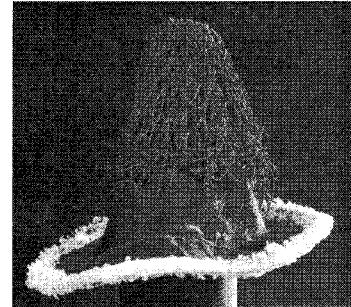
〈그림 11, 12〉¹⁶⁾는 몽골족이 착용하는 원추형태의



〈그림 11〉 원추형 모자 I, 몽골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77.



〈그림 12〉 원추형 모자 II, 몽골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76.



〈그림 13〉 원추형 모자 III, 어원커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125.

모자로 머리 중앙의 뾰족한 부분에 붉은색 술을 장식하였는데 이 붉은 술은 몽골족과 기타 민족을 구별하는 상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외몽골 서부 우량 하이족 등 일부 집단 사이에서만 이러한 전통적인 모자를 쓰고 있으며, 여자들은 결혼하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보석 등으로 선명한 색상의 머리 장식을 한다. 〈그림 13¹⁷⁾은 어원커족이 착용하는 원추형 모자이며 위가 뾰족하고 붉은 술을 달았으며 모자 테 두리에 새끼 양가죽 털이 부착되어 있다. 겨울철 방한용 모자의 귀 덮개는 새끼 양가죽이나 수달가죽 또는 시라소니 가죽 등 귀한 가죽 털을 사용하여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2. 의복

1) 포

동북·내몽골지구의 어른첸족, 따알족, 어원커족, 허저족, 몽골족은 대대로 수렵위주의 생활을 하였으므로 의, 식, 주에서 모두 수렵문화의 특징이 나타난다. 수렵이 생존의 수단이므로 일 년 내내 짐승을 쫓아 광활한 임해 속을 떠돌아다니며 거주가 일정치 않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짐승가죽으로 만든 의복은 내구성, 보온성이 커서 한랭한 기후의 일상생활에 필수적 이었다. 그 중에서도 모질이 길고 치밀하며 방한성이 우수한 들개가죽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고라니가죽, 양가죽, 여우 털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포는 우리나라의 두루마기와 같이 상하를 하나로 감싸면서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장포이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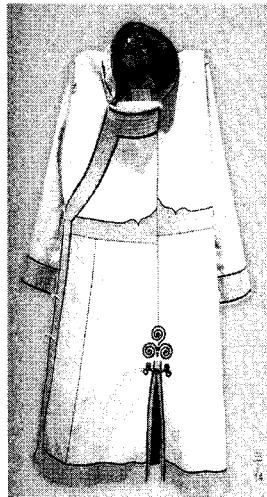
는 치파오와 비슷하고 목둘레는 둑근 원형이며, 여밈의 형태는 대부분 대금이고 소매모양은 착수 형태를 하고 있다.¹⁸⁾

〈그림 14, 15¹⁹⁾은 어른첸족이 착용한 고라니 가죽으로 만든 장포이다. 어른첸족의 가죽옷에 관한 기원은 『북사(北史)』나 『실위전(室韋傳)』에 의하면 ‘발실위인은 백화피로 지붕을 덮고 수렵을 하여 고기는 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제작한다’라는 기록이 있다.²⁰⁾ 고라니로 만든 옷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가벼우며 질긴 것이 특징이다. 깃 형태는 목 주변을 등글게 감싸게 되어 있으며 우임의 전개형으로 여러 개의 매듭단추 등으로 여미게 되어 있다. 소매는 부리로 갈수록 좁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소매부리와 셀, 도련 등에 여우 털 등으로 선 장식을 하였다. 수렵생활에 편리하도록 옆트임이나 앞트임을 주었는데 이 트임 부분에는 매듭단추를 달아 장식하거나 운문이나 화초문 등의 문양을 화려한 색상으로 자수를 넣어 장식하기도 했다.

〈그림 16²¹⁾은 어원커족의 새끼 양가죽으로 만든 장포로 안쪽에는 털로 되어있으며, 바깥쪽에는 가죽으로 제작된 것이다. 깃 형태는 목을 덮는 높이의 깃이며 우임의 전개형으로 어른첸족의 장포보다 넓은 소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옷섶, 목둘레, 소매입구 부분에 검은 테를 두르거나 구름문양으로 장식하고, 여밈 부분에 두 줄의 가죽단추나 메기뼈 단추를 달았다.²²⁾ 〈그림 17²³⁾은 따알족이 착용한 고라니 가죽으로 만든 장포이며, 다른 가죽이나 털에 비해 두껍고 무겁지만 이 지역의 강추위를 견디기에 적합했을



〈그림 14〉 장포 I, 어른첸족
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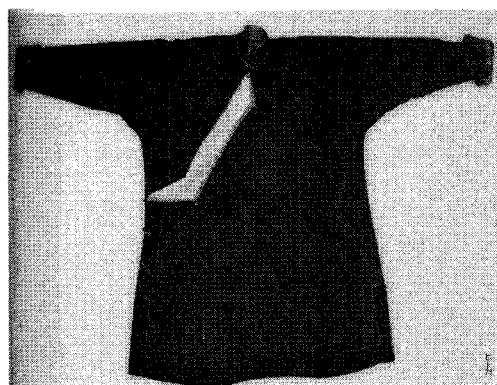
〈그림 15〉 장포 II, 어른첸족
中國民族復飾博覽, 2001,
p. 263.



〈그림 16〉 장포 III,
어원카족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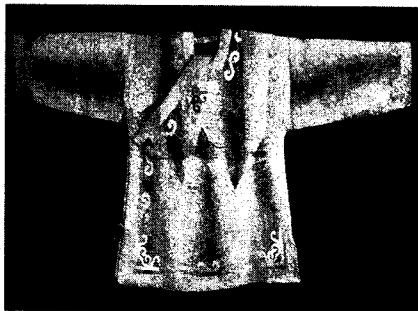
〈그림 17〉 장포 IV, 따알족
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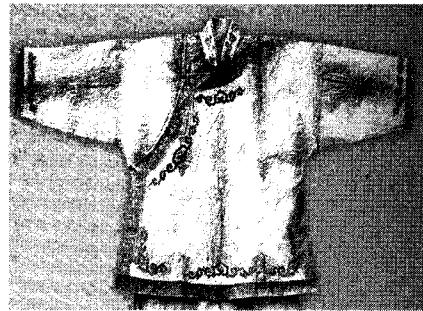
〈그림 18〉 장포 V, 몽골족
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37.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의 모습은 사냥하기 전 모습으로 고라니 장포를 입고 허리에 양모직의 요대를 두르고 우측에는 요도(腰刀)를 휴대한 모습이다. 〈그림 18〉²⁴⁾은 몽골족이 착용한 것으로 바깥쪽에는 청색의 둉근 학 문양이 직조된 직물이며 안쪽에는 새끼 양 가죽이 덧대어져 있다. 형태는 치파오와 같고 목을

덮는 높이 짓이며 우암으로 기마 시 편리하도록 옆 트임이 되어져 있고 말발굽형 소매가 특징이다. 옷섶, 목둘레, 소매입구 부분에 검은 테를 두르거나 구름문 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림 19〉 저고리 I, 허저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58.



〈그림 20〉 저고리 II, 허저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57.



〈그림 21〉 바지 I, 허저족
中國民族復飾博覽, 2001,
p. 263.



〈그림 22〉 바지 I, 허저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58.



〈그림 23〉 바지 I, 어원커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70.

2) 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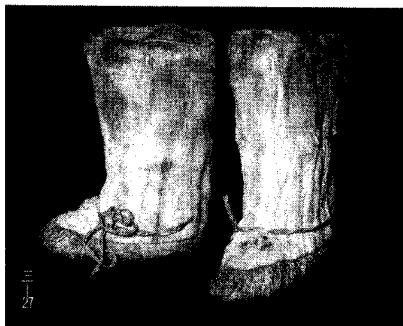
허저족은 동북·내몽골지구에서 유일하게 수렵 및 어로생활을 즐기며 개썰매를 운송도구로 사용하는 민족이다. 특이하게도 물고기 가죽을 의복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피부(魚皮部)’라 불리기도 하였다.²⁵⁾

〈그림 19, 20〉²⁶⁾은 허저족의 물고기 가죽으로 만든 저고리이며 단지 엉덩이를 살짝 가릴 정도의 길이에서 차이를 보일뿐 전체적인 형태는 장포와 유사하다. 둥근 깃에 우임이며 전개형으로 소매가 넓은 반면 길이는 짧으며 허리는 좁고 도련은 조금 넓다. 깃, 옷섶, 소매자락, 밀단에 폐기과 물고기의 일종인 회두어 가죽을 권초문, 운문 등의 문양으로 오려서 아프리케 장식을 한 것이 특징이다.

3) 바지

동북·내몽골 지역에서 발견된 바지는 전체적으로 바지 부리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가 특징인데 이것은 대부분 목이 긴 장화형태의 신발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22〉²⁷⁾는 허저족의 물고기 가죽을 여러 장 연결시켜 만든 것으로 방수성과 보온성이 뛰어나며, 밀자락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좁은 형태이며, 바지 도련 밀자락에 회두어 가죽을 권초문양으로 오려서 장식하였다. 〈그림 23〉²⁸⁾은 어원커족이 착용한 들개가죽으로 만든 바지로 앞부분은 텔이 밖으로 보이게 장식하였으며, 뒷부분은 무두질한 가죽을 연결하



〈그림 24〉 털신 I, 어른체족
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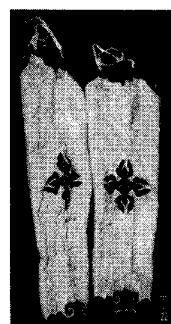
〈그림 25〉 털신 II, 허저족
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43.



〈그림 26〉 털신 III, 어원커족
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70.



〈그림 27〉 털신 IV, 따알족
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53.



〈그림 28〉 털신 V, 어른체족
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42.

여 멋스럽게 제작하였다.

4) 신발

고지대의 유목생활에 적합하도록 긴 장화 형태가 발달하였는데 어른체족에서는 '치하미'라 불리기도 한다. 장화는 지역에 따라 털신과 가죽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털신의 경우 비교적 극심하게 추운지역에서 착용한 털이 밖으로 장식되어진 형태,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서 착용한 털이 안으로 장식되어진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털신

① 털을 밖으로 장식한 형태

털을 밖으로 장식한 털신은 대부분 긴 장화 형태이며 동물 가죽 자체의 자연스러운 색상과 느낌을 살

릴 수 있으며 바람을 막고, 비에 젖지 않는 방수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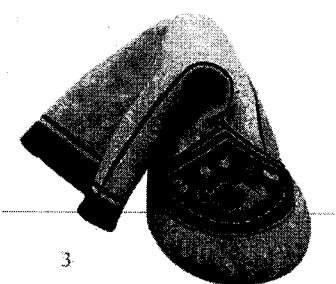
〈그림 24²⁹⁾는 어른체족이 착용한 큰사슴의 다리 가죽으로 만든 장화이며 발목윗부분은 털이 밖으로 장식되어 있어 동물가죽 원래의 자연스러운 색상을 나타내며, 눈 위를 걸을 때 미끄럼 방지 및 방수 효과를 위해 발바닥은 털을 제거한 가죽을 덧대었다. 〈그림 25³⁰⁾는 허저족의 남성이 사냥을 갈 때 신는 '치카미'라는 장화이다. 보통 고라니 가죽이나 큰 사슴가죽을 여러 조각을 이어 붙여 장화 몸통을 만드는데 이 장화의 경우 고라니 털이 밖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다른 동물의 털을 사용하고 입구 쪽에 색사장식을 해서 비교적 화려한 느낌을 준다. 〈그림 26³¹⁾은 어원커족의 장화로 흰색과 갈색의 털이 밖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무릎 밑까지 길이이며 단을 접은 후 끈으로 묶어서 예미었다. 〈그림 27³²⁾



〈그림 29〉 털신Ⅰ, 어른챈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39.



〈그림 30〉 털신Ⅱ, 어른챈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43.



〈그림 31〉 털신Ⅲ, 어원커족
中國民族復飾博覽, 2001, p. 243.



〈그림 32〉 물고기 가죽신Ⅰ, 허저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62.

은 따알족의 장화로 텔이 밖으로 장식되어진 것으로 바닥부분은 가죽을 덧대어 비에 젖지 않도록 했다. 〈그림 28〉³³⁾은 종아리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형태로 제주도 목자들이 사용했던 가죽발레와 같은 형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큰사슴 다리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무두질한 가죽을 사용하여 텔이 밖으로 나오게 장식하였으며 그 위에 부분적으로 구름문양과 꽃문양으로 화려한 장식을 했다.

② 텔을 안으로 장식한 형태

텔을 안으로 장식한 텸신은 날씨가 좋은 날에 일을 하거나 사냥 시 보온용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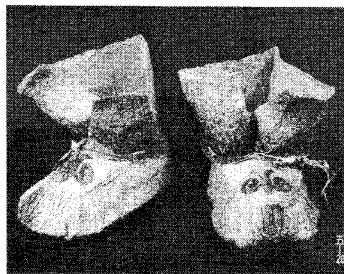
〈그림 29, 30〉³⁴⁾은 어른챈족이 착용하는 장화로 ‘치하미’라 불리는 것이다. 이 장화는 텔이 안으로 장식되어져 있으며 장화 몸통은 무두질한 고라니 가죽, 사슴가죽, 고라니 힘줄을 사용하여 만들며, 가죽 밑

창은 텸을 민 큰사슴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부드럽고 유연하며 가볍고 쉽게 뒹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³⁵⁾. 이 장화를 신기전에 ‘타오부단’이라는 가죽버선을 착용하기 때문에 발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그림 31〉³⁶⁾은 어원커족이 착용하는 장화로 텸이 안으로 장식되어져 있으며 발 등에는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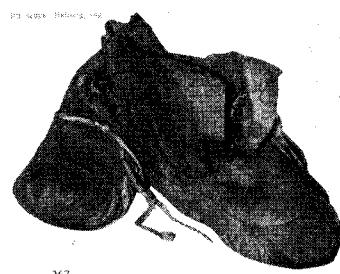
(2) 물고기 가죽신

물고기 가죽은 특히 방습과 방수효과가 좋기 때문에 수렵생활을 하는 허저족의 경우 유용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신발이다.

〈그림 32, 33, 34〉³⁷⁾는 허저족의 목이 짧은 형태의 물고기 가죽장화로 ‘을납(兀拉)’이라고 한다. 이 장화는 물고기를 잡거나 수렵 시에 착용하는데 앞코 부분에 주름을 넣어 등근 형태가 되게 장식했으며, 발



〈그림 33〉 물고기 가죽신 II, 허저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66.



〈그림 34〉 물고기가죽신 II, 허저족
中國民族復飾博覽, 2001, p. 267.



〈그림 35〉 소가죽신 I, 몽골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77.



〈그림 36〉 소가죽신 II, 몽골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77.

복 부분에는 가죽을 오려 장식을 하거나 발등에 문양을 넣어 장식하였다. 〈그림 35〉³⁸⁾는 몽골족이 기마시 착용하는 흑색의 소가죽장화이며 〈사진 36〉은 빨간색의 소가죽 장화로 색사를 사용하여 화문, 운문 등의 문양으로 수놓았으며³⁹⁾ 신코 끝이 올라가 배모양이다. 코가 올라간 것은 말을 탈 때 발걸이에 코를 걸어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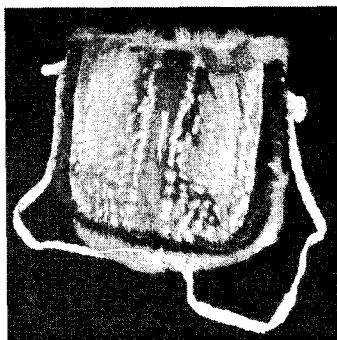
5) 소품

이 지역에서 사용한 소품으로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가방과 주머니, 겨울철 손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장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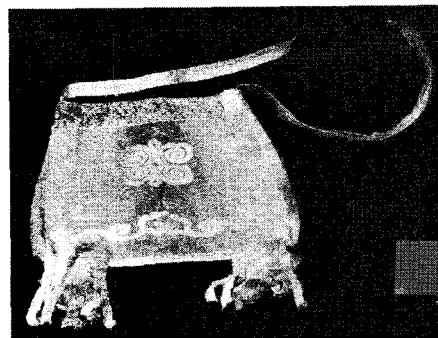
(1) 가방과 주머니

〈그림 37〉⁴¹⁾은 어른천족 여성들이 어깨에 걸쳐 착용하는 고라니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는 사각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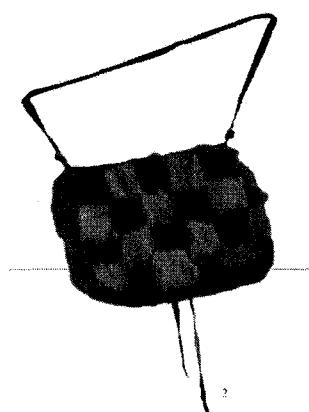
가방이다. 이것은 고라니 털이 밖으로 보이게 하여 고라니 털 자체를 장식문양으로 사용했다. 〈그림 38〉⁴²⁾은 허저족이 어깨에 걸쳐 사용하는 물고기 가죽 가방으로 앞부분에 구름문이나 화문 등의 아프리케 장식을 하였다. 〈그림 39, 40〉⁴³⁾은 어른천족 어린아이들이 착용하던 어깨에 걸치는 형태의 가방으로 고라니 털 자체의 색을 이용하여 사각형 문양을 만들어 장식하거나 작은 새를 문양으로 만들어 장식하여 귀여운 형태를 보인다. 〈그림 41〉⁴⁴⁾은 들개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이며 가죽을 오려 종 모양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달아 장식했으며 〈그림 42〉⁴⁵⁾는 고라니 가죽의 자투리 부분을 사용해서 만든 주머니로 손이 많이 닿는 주머니 입구부분에는 무두질한 가죽으로 사용하였으며, 프린지 장식을 하여 털과 가죽의 아름다운 입체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37〉 가방 I, 어른천족
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37.



〈그림 38〉 가방 II, 허저족
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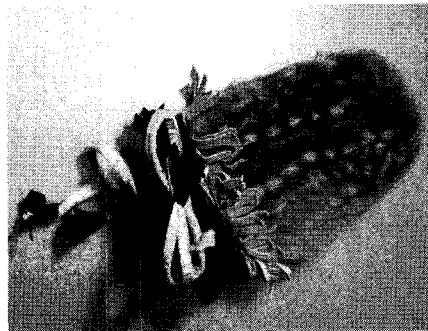
〈그림 39〉 가방 III, 어른천족
中國民族復飾博覽, 2001, p.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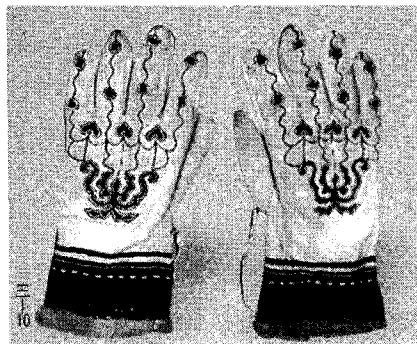
〈그림 40〉 가방 III, 어른천족
中國民族復飾博覽, 2001, p. 330.



〈그림 41〉 주머니 I, 어원커족
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72.



〈그림 42〉 주머니 II, 어른천족
中國織繪服飾全集, 2005, p. 43.



〈그림 43〉 가죽장갑 I, 어른чен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39.



〈그림 44〉 가죽장갑 II, 어른чен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39.



〈그림 45〉 가죽장갑 III, 어른чен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42.



〈그림 46〉 가죽장갑 IV, 어른чен족
中國織繡服飾全集, 2005, p. 42.

(2) 장갑

추운 지역에서 따뜻하게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 장갑에는 손가락장갑과 병어리장갑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보인다. 이런 장갑류에는 다른 복식류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장식기법이 사용되어 매우 화려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44⁴⁶)는 초가을 막 솜털이 난 고라니 가죽으로 만든 손가락장갑으로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무두질한 가죽을 사용했다. 장갑의 손가락과 손등에 화조도안 수를 놓았으며, 손을 넣는 입구에는 시라소니, 다클리 등 다른 색의 모피를 두르기도 하고 장식스티치를 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정교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림 45, 46⁴⁷) 또한 초가을 막 솜털이 난 고라니 가죽으로 만든 병어리장갑으로 하얀색 가죽이며 유연하여 착용감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손등에 다른 색의 가죽으로 장식하여 아기자기한 멋을 느낄 수 있다.

III. 동북·내몽골지역 중국소수민족이 착용한 모피와 피혁류 복식의 특성

동북·내몽골지역의 중국소수민족이 착용한 모피와 피혁류 복식에 나타난 특성을 형태, 소재, 봉제 및 장식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태

동북·내몽골지역은 여름이 짧은 반면 겨울은 매우 춥고 길다. 대부분 유목생활을 함으로 인해 복식에서도 동물의 가죽 및 털을 의복소재로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쉽게 자연적인 미를 느낄 수 있다. 털을 바깥으로 해서 제작한 바지나 신발, 가방류에는 동물의 자연스러운 털의 무늬를 그대로 살렸으며 특히 어른чен족, 파알족, 어원커족, 허저족이 착용한 동

물머리형 모자는 들개나 사슴의 머리가죽과 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모피로 장식하여 머리에 꼭 끼는 형태로 만들어 머리를 보호하고 따뜻하게 장식한 것으로 자연 그대로의 미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사냥 시 관목림이나 풀숲 사이에 엎드려 있으면 위로 살짝 보이는 동물머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맹수를 유인할 수 있고, 맹수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 시 최고의 위장법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으로 동북·내몽골지역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는 모자이다.

이에 반해 털이나 모피로 만든 저고리와 포의 깃 가장자리나 신, 장갑, 가방과 같은 소품류에 운문, 화문 등의 자수장식, 스티치장식, 선장식, 아플리케장식을 한 것을 보면 인공적인 장식미를 또한 느낄 수 있다. 특히 장갑의 경우 손등에 자수를 넣어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부분적으로 귀한 여우털이나 시라소니 가죽을 사용하여 정교한 장식 공예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허저족이 착용한 물고기 가죽신 앞코부분의 인위적인 작은 주름장식, 몽골족이 착용한 소가죽신의 위로 올라간 앞코장식부분, 어른첸족의 벙어리장갑의 손가락부분에 잡은 주름장식 등에서는 매우 인공적인 장식미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말 방목지인 제주의 유목민에 큰 영향을 미친 몽골족이 착용한 장화형태의 신은 제주 유목민이 착용했던 가죽발레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2. 소재

동북·내몽골지역은 산림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과 추운 겨울이 긴 기후특성으로 인해 직물을 제작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짐승가죽이나 물고기 가죽을 사용하여 주로 복식을 제작했다. 이 지역에서 사용한 동물 가죽은 주로 들개, 고라니, 사슴, 물고기, 소, 여우 등이다. 각 민족이 복식의 종류에 따라 사용한 동물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어른첸족, 어원커족, 따알족은 고라니, 사슴, 들개, 여우 등을 주로 사용했으며, 몽골족은 양, 소가죽을 사용했으며 허저족은 고라니, 사슴가죽 외 물고기 가죽을 복식에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어른첸족 여성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박피와 숙피 기술을 갖고 있어 의복 및 소품에 부분적으로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었다. 어원커족은 순록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민족 명칭이 유래할 정도로 순록을 많이 사육하였으며 이 순록 가죽을 의복재료로 많이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전설에 따르면 어원커족의 조상들은 산에서 수렵생활을 하면서 많은 야생사슴을 잡았다⁴⁸⁾고 하며 실제로 포와 신발류에서 사슴가죽이 널리 사용되었다. 따알족은 청대에 이르러 조정에 담비 털 등의 진공피를 현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특히 청대에는 동북지방의 초피(貂皮)라는 족제비과 동물이 공품대상이었다⁴⁹⁾는 기록이 있다. 몽골은 많은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는 나라이며 이 지역에서 사냥은 고대로부터 주요한 생산의 수단이며 생존의 한 방편이 되어 왔으나 사냥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금기와 의례가 있었다. 특히 곰, 사슴, 고라니 등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매우 신중히 했으며 사냥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례를 행하였다고 하며⁵⁰⁾ 의복에는 주로 이런 동물의 털, 가죽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허저족은 대대로 동북의 송화강 흑룡강, 우수리강 연안에 살면서 중국 북방에서는 유일하게 물고기를 잡는 민족으로 주식도 물고

<표 1> 각 민족의 복식에 사용한 동물의 종류

	포개	포	자로리	비저	신발	가방류	장갑
어른첸족	고라니, 들개	고라니	들개	-	사슴	사슴, 고라니	고라니
어원커족	고라니, 양	양, 사슴	-	들개	사슴	고라니, 들개	-
따알족	들개, 여우	고라니, 담비	-	-	-	-	-
몽골족	양	양	-	-	소가죽	-	-
허저족	고라니	-	물고기	물고기	고라니, 사슴 물고기	물고기	-

기이고 이것으로 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의복은 보온성, 방수성이 뛰어나며 고유의 물고기비늘 문양이 있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제주도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입지 환경과 폐쇄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추위와 더위에 대처하기 위한 실용성과 기능성을 중시하여 비교적 구하기 쉽고 질긴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사용해서 복식을 만들어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루마기류에는 개가죽이나 소가죽 소재를 사용하고, 모자류에는 오소리 가죽을 사용하였으며 족의류에는 소가죽 등을 사용했다.⁵¹⁾

3. 봉제 및 장식기법

추운 자연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소재로 거칠고 투박한 동물의 가죽을 선택했지만 그들만의 오랜 경험과 노력으로 실용성과 기능성 뿐만 아니라 장식성까지 갖춘 복식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3>은 동북·내몽골 지역에서 모피 및 퍼혁류에 사용된 봉제방법에 의한 장식기법이 사용된 예를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주름·셔링·턱은 옷감의 폭을 접어서 줄이 생기게 하여 부드럽게 만드는 기법⁵²⁾으로 족의와 소품류에 주로 사용되었다. 족의의 경우 몽골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족에서 이 기법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발 앞코 부분에 인위적인 작은 주름을 잡아 둑글게 만들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였다. 소품류의 경우는 병어리장갑의 손가락 부분에 잔주름장식을 넣었는데 이는 장식의 목적도 있지만 인위적인 주름을 넣음으로써 손가락과 발가락을 좀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할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프린지는 바탕천의 가장자리에 달아서 장식하는 술⁵³⁾로 족의와 소품류에 사용되었다. 허저족의 물고기 가죽 신발 입구와 가방 밑단부분에 장식되었으며 어른첸족의 주머니 입구 부분에 입체적으로 장식되어져 있어 생동감 있고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

세 번째. 아플리케는 바탕천 위에 여러 종류의 천을 오려서 붙이고 윤곽을 실로 퀘매 붙이는 기법⁵⁴⁾

으로 의복, 족의, 소품류에 두루 사용되었다. 허저족이 착용한 물고기 가죽 저고리의 소매부리, 앞여밈, 진동과 바지 부리, 그리고 가방 중앙에 다른 가죽을 오려 윤문 장식을 하였으며, 신발의 발등 중앙 부분에 화문 등의 다른 가죽을 오려서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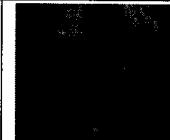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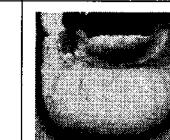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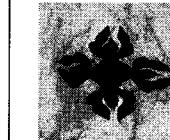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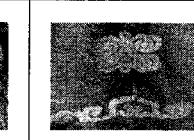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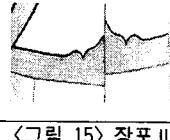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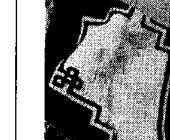
네 번째. 탑스티칭은 동색 또는 대비색의 실을 사용하여 상침하는 기법⁵⁵⁾으로 의복과 소품류에 사용되었다. 의복의 경우 장포의 가슴부분 장식테두리에 선명한 색을 사용하여 스티칭하였으며, 병어리장갑의 손등 장식부분 테두리에도 스티칭되어 있다.

다섯 번째. 자수란 옷감이나 형겹에 여러 가지의 색실을 사용하여 그림, 글자, 무늬 등을 수놓는 기법⁵⁶⁾을 말하며 족의와 소품류에 주로 사용되었다. 족의의 경우 털이 안으로 장식되어진 형태의 털신에 화려한 화문 등의 자수를 넣었으며, 손가락장갑의 경우 손등 전체에 화려한 화조문양의 자수를 넣어 한층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파이핑 및 선은 가죽이나 천의 이음매에 가늘게 끼워 넣어서 장식하는 기법⁵⁷⁾으로 의복과 족의에 사용되었다. 장포의 경우 앞가슴 부분과 깃, 소매 테두리에 선장식이 되어있어 옷이 한층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며, 족의의 경우 몽골족의 가죽신 테두리에 대조 색을 사용하여 파이핑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보아 가장 다양한 기법이 사용된 복식류로는 족의를 들 수 있는데 주름, 셔링 및 턱, 프린지, 아플리케, 자수, 파이핑 및 선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의복과 소품류 중 장갑에서 다양한 장식기법이 사용되었다. 의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으로는 아플리케, 탑스티칭, 파이핑 및 선 등이며, 장갑에 사용된 기법으로는 주름, 셔링 및 턱, 탑스티칭, 자수기법 등이다.

종족별로 사용된 장식기법을 살펴보면 어른첸족이 주름·셔링·턱, 프린지, 아플리케, 탑스티칭, 자수, 파이핑·선 등의 가장 다양한 장식기법을 사용했으며, 그 다음으로 허저족이 주름·셔링·턱, 프린지, 아플리케, 자수 등의 기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어원커족의 경우 주름·셔링·턱, 자수, 파이핑·선 등의 장식기법을 사용했으며 몽골족의 경우 자수, 파이-

주름 · 셔링 · 턱 (pleats, shirring/tuck)					
	<그림 24> 털신 I 어른천족	<그림 27> 털신 IV 파알족	<그림 29> 털신 I 어른천족	<그림 30> 털신 II 어른천족	<그림 31> 털신 III 어원커족
					
프린지 (fringe)					
	<그림 32> 가죽신 I 허저족	<그림 33> 가죽신 II 허저족	<그림 34> 가죽신 II 허저족	<그림 45> 장갑 III 어른천족	<그림 46> 장갑 IV 어른천족
아플리케 (applique)					
	<그림 19> 저고리 I 허저족	<그림 21> 바지 I 허저족	<그림 28> 털신 V 어른천족	<그림 33> 가죽신 II 허저족	<그림 38> 가방 II 허저족
탑스티칭 (top stitching)					
	<그림 14> 장포 I 어른천족	<그림 15> 장포 II 어른천족	<그림 46> 장갑 IV 어른천족		
자수 (embroidery)					
	<그림 25> 털신 II 허저족	<그림 29> 털신 I 어른천족	<그림 31> 털신 III 어원커족	<그림 36> 가죽신 II 몽골족	<그림 43> 장갑 I 어른천족
파이핑 · 선 (piping/line)					
	<그림 14> 장포 I 어른천족	<그림 15> 장포 II 어른천족	<그림 16> 장포 III 어원커족	<그림 29> 털신 I 어른천족	<그림 35> 가죽신 I 몽골족

<그림 43> 봉제방법에 의한 장식기법이 사용된 예

평·선 장식기법을, 따알족의 경우 주름·셔링·턱 장식기법만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북·내몽골지역의 복식에서는 모자를 제외한 의복, 족의, 소품류에 주로 봉제기법을 이용한 장식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자는 동물의 머리 가죽을 그대로 사용하여 모자 그 자체가 화려한 장신구의 일종이었으며 별도의 장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의복, 족의, 소품류에서는 다양한 부분 장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부피가 작은 족의와 소품류에 많은 장식기법이 사용되었다. 중국 소수민족 여성의 경우 손재주가 좋고 부피가 큰 옷을 만들고 난 여러 종류의 자투리 가죽을 사용해서 다양한 문양을 만들어 부착하고 다양한 장식기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는 일상사가 주로 물질 및 목축 등의 노동의 연속이었고 복식은 추위와 더위에 대처하기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되었기 때문에 장식성 보다는 실용성과 합리성을 더욱 중시하여 동북·내몽골지역의 복식에서 만큼 다양한 장식기법은 찾기 힘들다.

IV. 결론

동북·내몽골지역은 중국대륙의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겨울은 길고 매우 춥기 때문에 유목 및 수렵 생활을 주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냥에서 얻은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복식이 발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소수민족 중 어른첸족, 따알족, 허저족, 어원커족, 몽골족 등의 동북·내몽골지역에서 착용한 모피 및 괴혁류 복식의 유형을 모자, 의복, 족의, 소품으로 분류하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는 방한용 모자의 일종으로 유목과 수렵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발달하였으며 대부분 고라니, 들개, 여우 등의 가죽을 사용하였다. 형태에 따라 동물머리형, 꽂잎형, 등근형, 원추형모자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동물머리형 모자의 경우 들개나 고라니 머리를 그대로 보존하여 머리를 감쌀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눈, 코, 입, 귀, 뿐을 그대로 유지하여 착

용 시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느낄 수 있으며, 때론 맹수를 유인하는 최고의 위장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꽂잎형 모자의 경우 가장자리가 4개의 등근 꽂잎형태로 나누어진 것을 말하며 착장방법에 따라 양 옆 귀 덮개 부분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평상시에는 챙을 위로 올려서 착용하며 매우 추운 날에는 챙을 밀으로 내려서 양귀와 뒷목을 따뜻하게 한다. 등근형 모자의 경우 머리와 귀, 목 등을 한꺼번에 감쌀 수 있도록 통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유목민이 방한용으로 쓰는 전통모자이다. 원추형 모자의 경우 위가 뾰족하며 모자의 귀 덮개 부분은 양털이 부착되어져 있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릴 때 필수품이다.

둘째, 의복은 포, 저고리, 바지로 구분하며, 대대로 수렵생활에 유용한 내구성, 보온성이 좋은 들개가죽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고라니, 양, 사슴, 담비, 물고기가죽 등도 사용되었다. 포의 경우 우리나라의 두루마기와 같이 상하를 하나로 감싸면서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장포이며 깃, 소매부리와 같은 가장자리에 아플리케, 파이핑·선 등의 장식을 하였다. 저고리의 경우 허저족이 착용한 물고기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엉덩이를 살짝 가릴 정도의 길이이며 전개형으로 깃, 옷섶, 밑단에 다른 물고기 가죽을 권초문, 운문 등의 문양을 오려붙여 아프리케 장식을 하였다. 바지의 경우 부리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는 목이 긴 장화를 착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지 부리 부분에 운문의 아플리케 장식을 하였다.

셋째, 족의는 고지대의 유목생활에 적합하도록 긴 장화 형태가 발달하였으며, 사슴, 소, 고라니, 물고기 가죽을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텔신과 가죽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발의 경우 대부분 앞코 부분에 인위적인 작은 주름을 넣어 등근 형태이다. 텔신의 경우 텔이 밖으로 장식되어진 형태와 텔이 안으로 장식되어진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텔이 밖으로 장식되어진 형태의 경우 가죽 본연의 느낌을 살려 자연스러운 형태와 색상을 볼 수 있는 반면 텔이 안으로 장식되어진 형태의 경우 장화 봄통 부분에 다양한 아플리케, 자수 등의 장식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주었다. 그리고 가죽신의 경우 허저족의 물고기 가죽신과 몽골족의 소가죽신이 있다. 물고기 가죽신은 목이 짧은 형태이며 이는 물고기를 잡거나 수렵 시 착용하는데 특히 방습과 방수효과가 좋으며, 신발의 발등에 아플리케 장식을 하거나 신발 입구 가장자리에 프린지 기법으로 장식하여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몽골족의 소가죽신의 경우 파이핑 장식과 다양한 색사를 사용하여 화문 등의 자수를 넣어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넷째, 소품의 경우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가방과 주머니, 손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장갑이 있으며 주로 고라니, 사슴, 물고기가죽이 사용되었다. 가방의 경우 어깨에 걸쳐 착용하는 사각형 형태이며, 어른챈 족의 가방은 텁이 밖으로 보이게 하여 텁 자체를 장식문양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머니의 경우 텁과 가죽이 함께 사용되어졌는데 손이 많이 닿는 주머니 입구 부분은 무두질한 가죽을 사용하였고 브린지 장식기법으로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다. 장갑의 경우 손가락장갑과 빙어리장갑이 있으며, 초가을 막 솜털이 난 고라니 가죽으로 만들며 손등에 자수를 넣어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부분적으로 귀한 시라소니, 여우털 등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정교한 장식공예품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북·내몽골지역과 우리나라 제주도지역에 나타난 모피류 및 괴혁류 복식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두 지역 특성상 척박한 자연환경과 고립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직물의 입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추운 겨울 눈보라와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거칠고 투박한 가죽을 의복재료로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 모자의 경우 고급품인 오소리 가죽을 사용하였으며, 의복의 경우 개가죽 두루마기는 눈에 잘 띠는 앞가슴 부분과 등 부분에 결이 굽고 광택이 나는 텁을 사용하였고, 가죽 베선의 경우 뒤축부분에 가죽2장을 나뭇잎 모양으로 재단하여 덧대어 튼튼하게 보강하면서도 장식적인 요소도 가미하였다. 소품의 경우 얇은 가죽끈을 이용하여 주머니 전체를 어슷감침 기법으로 장식한 예도 있었으나 방한을 우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대부분으로 제주인의 미적인 감각이 뚜렷하게 표현된 예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중국소수민족 동북·내몽골지역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복, 족의, 소품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장식기법을 사용하여 기능성과 실용성을 고려하면서도 장식성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박준순 (2001). 중국 남·북방민족 복식의 비교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4(1), pp. 1-10.
- 2)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제주도지 5 제주도: 제주, pp. 838-843.
- 3)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2005). 中國美術分類全集 中國織繡服飾全集 5 少數民族服飾卷(上), 天津: 天津人民美術, p. 21.
- 4) 위의 책, p. 42.
- 5) 위의 책, p. 261.
- 6) 首屆中國民族服裝服飾博覽會執委會 (2001). 中國民族服飾博覽. 云南: 云南人民出版社/云南民族出版社, pp. 243-346.
- 7)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앞의 책, p. 71.
- 8) 위의 책, pp. 36-70.
- 9) 위의 책, p. 53.
- 10) 위의 책, p. 71.
- 11) 위의 책, p. 84.
- 12) 위의 책, pp. 34, 36.
- 13) 위의 책, p. 101.
- 14) 위의 책, p. 64.
- 15) 위의 책, p. 56.
- 16) 위의 책, pp. 76-77.
- 17) 위의 책, p. 125.
- 18) 박준순, 조우현 (2002). 중국 소수민족 복식. 서울: 민속원, pp. 36-37.
- 19)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앞의 책, pp. 37, 263.
- 20) 위의 책, p. 47.
- 21) 위의 책, p. 69.
- 22) 위의 책, p. 50.
- 23) 위의 책, p. 53.
- 24) 위의 책, p. 37.
- 25) 위의 책, pp. 56-57.
- 26) 위의 책, pp. 57-58.
- 27) 首屆中國民族服裝服飾博覽會執委會. 앞의 책, pp. 58, 263.
- 28)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앞의 책, p. 70.
- 29) 위의 책, p. 43.
- 30) 위의 책, p. 43.
- 31) 위의 책, p. 70.
- 32) 위의 책, p. 53.
- 33) 위의 책, p. 42.

- 34) 《위의 책》, pp. 39, 43.
- 35) 《위의 책》, p. 72.
- 36) 首屆中國民族服裝服飾博覽會執委會, 《앞의 책》, p. 243.
- 37)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앞의 책》, pp. 62, 66.
- 38) 《위의 책》, p. 77.
- 39) 趙孝順, 金姬燮 (1992). 中國 少數民族 服飾의 고찰 (I), 《복식》 18(5), p. 84.
- 40)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앞의 책》, p. 77.
- 41) 《위의 책》, p. 37.
- 42) 《위의 책》, p. 66.
- 43) 首屆中國民族服裝服飾博覽會執委會, 《앞의 책》, p. 330.
- 44)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앞의 책》, p. 72.
- 45) 《위의 책》, p. 43.
- 46) 《위의 책》, p. 39.
- 47) 《위의 책》, p. 42.
- 48) 흥나영, 신혜성, 최지희 (2004). 아시아 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p. 243.
- 49) 박춘순, 조우현. 《앞의 책》, pp. 40-41.
- 50) 이안나 (2005). 몽골인의 생활과 풍속. 서울: 첫눈에, p. 193.
- 51) 고순희, 장현주 (2008). 제주전통 텁소재 복식의 유형과 특성. 《복식》, 58(9), pp. 118-120.
- 52) 김용서, 김은정 (2003). 전통복식공예. 서울: 신광출판사, pp. 80-100.
- 53) 《위의 책》, p. 100.
- 54) 《위의 책》, p. 108.
- 55) 《위의 책》, p. 87.
- 56) 《위의 책》, p. 120.
- 57) 《위의 책》, p. 104.